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의정토론회

-
- 일 시 : 2016. 2. 22.(월) 14:00
 - 장 소 : 아산교육지원청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2. 22.(월) 14:00 ~ 16:00
- 장 소: 아산교육지원청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방안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이규섭 (탕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장기승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박상우 교수				
14:10	14:25	15′	주 제 발 표 ▶ 고미영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충남 진로교육 방안	
14:25	15:15	50′	지 정 토 론 ▶ 장기승 / 충청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 정대옥 /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이윤영 /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 지명근 / 온양풍기초등학교 학부모 ▶ 김부겸 / 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토론자 전체 (각 10분)
15:15	15:35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35	15:55	20′	청 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5:55	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박상우 교수)

목 차

■ 주제발표

-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충남 진로교육 방안 1
고미영(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 지정토론

- ☞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19
장기승(충청남도의회 의원)
- ☞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 27
정대옥(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 미래역량 키움을 위한 학교진로교육 31
이윤영(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 ☞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37
지명근(온양풍기초등학교 학부모)
- ☞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 43
김부겸(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충남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주제발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충남 진로교육 방안

고미영(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충남 진로교육 방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고 미 영

I. 진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진로란 한 개인의 일생 동안 하게 되는 일과 직업에 관련된 활동 및 지위의 총칭이자 일(work)과 여가(leisure)가 결합된 총체적 개념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로선택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의도적인 교육활동인 것이다(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2002: 장석민, 2010: 최동선·정철영·서우석·허종렬·윤형한, 2005).

진로교육은 다양한 일의 세계를 체험하고, 진로탐색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의 진로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로선택,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자기성찰의 습관 형성,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미래의 행복한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포괄적인 교육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교육부, 1997; 김승보·방혜진, 2010; 이지연·윤형한·김나라, 2005).

아직도 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진학지도에 무게중심이 있거나,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선호되고 있으며, 특성화고의 진학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대학을 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홍보되는 사례, 일반고·특성화고, 문과·이과, 대학 학과 등의 다양한 진로선택이 소질이나 적성과는 무관하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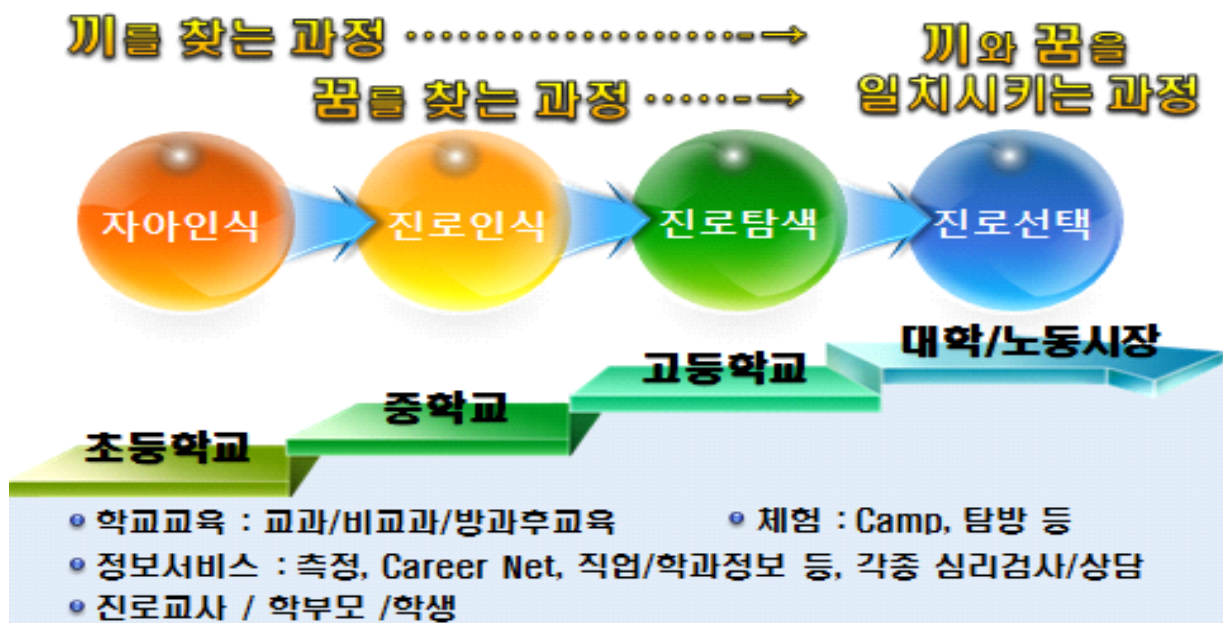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나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저하, 저출산 및 입시경쟁의 심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진로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 분	창의적 진로개발 모형	전통적 진로개발 모형
초 점	창의/혁신	맞춤/짜맞기
직업세계 가정	역동적,비정형적,이질적	정적,정형적,동질적
진로경로	유연한, 대안적,다원적/다층적	정형적,단선적
진로개발의 주요내용	핵심역량 , Entrepreneurship, 창의성	진단,의사결정기술,정보
학습방법	Learning by Doing(LBD) 현장체험습,Project-based PBS(problem-solving)	설명,정보제공,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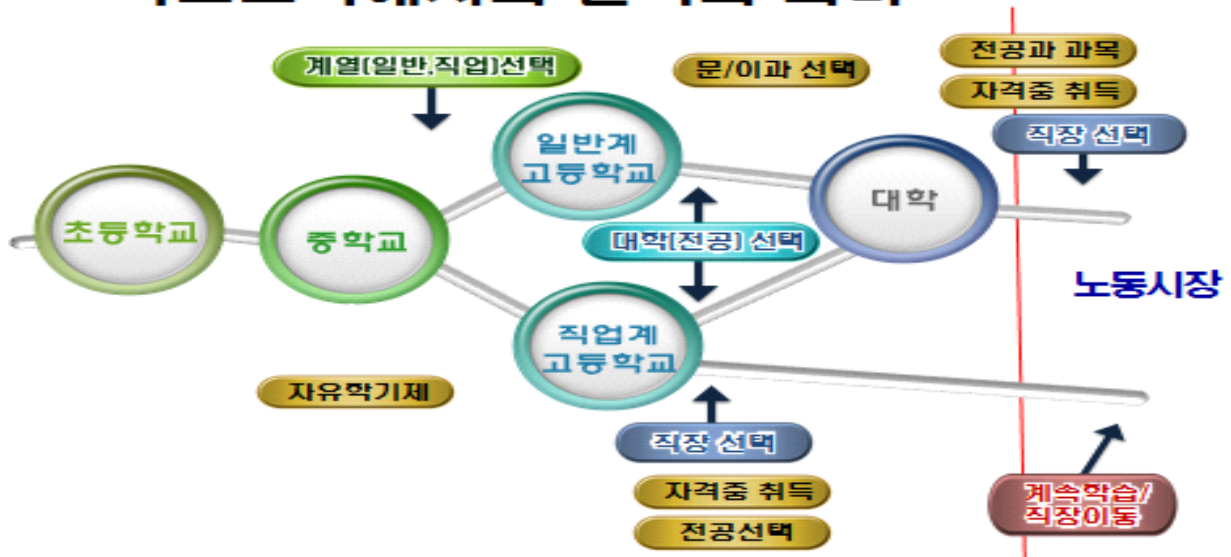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2014>

연속적인 진로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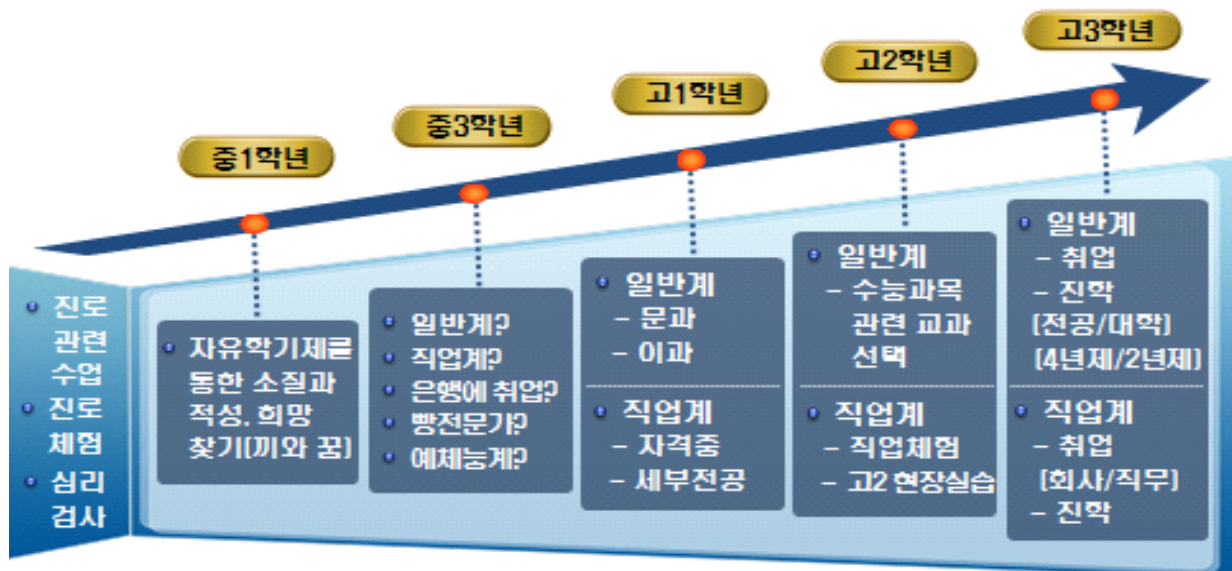
<교육부, 김환식; 2014>

학교교육에서의 선택의 의미



<교육부, 김환식; 2014>

학생이 해야 할 다양한 선택



<교육부, 김환식; 2014>

Ⅱ. 2016 충남교육의 기본방향과 진로교육

1. 2016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

2016년 충남교육은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매개체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야 할 학생과 보람과 열정이 충만한 교원간의 조화로운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교육지표: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15-13호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 미래 핵심역량

- 인성 역량(자기관리 능력-> ★**진로개발 능력**, 민주시민 의식)
- 지적 역량(자기주도 학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 사회적 역량(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적 소양 능력)

‘핵심역량(key/core competencies)’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맥락과 사회의 분야 에서 효과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역량” 즉. ‘핵심역량’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출 역량

(Rychen and Tiana, 2004).

■ 민주시민

- 공교육에서 교육목표와 내용, 교육활동 과정 전반에서 적용해야 할 운영 원리이다.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일은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이다.

3. 진로교육

가. 진로개발역량 강화

- 혁신적 학습방법: 학습자 관점, 학습자 중심 학습방법
- 현장 체험학습의 내실화
education for occupation -> occupation through education
- 앙터프레너십(entrepreneurship) 프로그램 활성화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향후 자신이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 촉진

나. 학교 진로교육 목표

1. 학교 진로교육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2. 초등학교

자신과 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한다.

3.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 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4. 일반고등학교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정보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한다.

4. 진로교육법(2015.6.12) 및 동법 시행령(2015.12.23) 제정

‘진로교육법(진로교육의 법적근거)’ 주요 내용

1.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자의 진로교육 시책마련
2.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 의무화
3.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4. 진로교육 집중학년 학기제 운영
5. 대학의 진로교육
6.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가·지역 진로교육센터 지원 운영
 - ※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 ※ 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7.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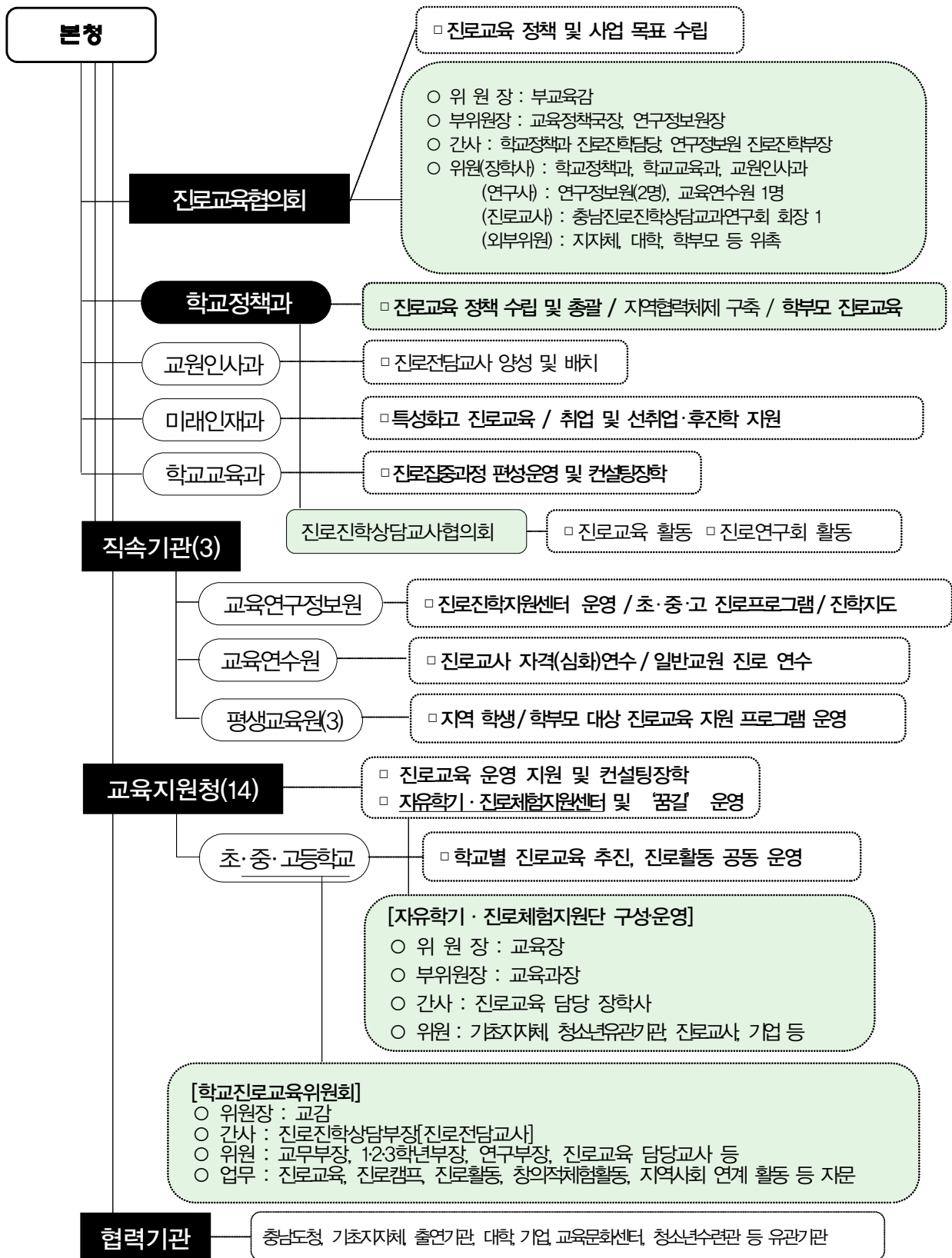
Ⅲ. 2015 충남 진로교육 평가 및 분석

1. 2015주요 추진 내용

<대상:초·중·고>

사 업 명	2015 추진 내용	비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14개 교육지원청별 센터 구축·운영	예산 및 컨설팅 지원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운영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 각 2,200여 개 등록	자유학기제 연계
학교진로활동실 구축 운영	27교(교과교실형19, 상담실형8)	총 186교 완료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중고 100% 배치 완료(327명)	순회 및 복수배치 포함
진로체험 제공 기관 발굴	1,041개기관(고34, 대24, 공공기관299, 민간680)	
제4회 진로체험전 개최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23,000여 명 참여	9.9(수) ~ 9.11(금)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	특성화고 34교 200여 회 10,000여 명 참여	
대학 연계 진로체험	16대학 150종 580회 13,000명 내외 참여	
진로캠프 운영	중고생 31,715명 진로캠프 참여	교육청 학교 기업 등주관
상설진로캠프 운영	10개 대학 연계 25개 프로그램 주말상설 운영	중고생 8,000여 명
공공기관 진로체험의 날 운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30여회 1,000명	유초중고 각학교 1회 이상
직업인 멘토 초청 활용	중고생 406,740시간 운영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원격화상진로멘토링 농어촌 145교 운영 (전문멘토 실시간 수업, 교당 10-20시간 운영)	직능원, 한화S&C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	찾아가는 전문직업인 멘토단 75명 운영	전문멘토단 방문수업
찾아가는 꿈행진의 날 운영	직업인 멘토 초청 프로그램 지원	중147교 1,370학급
생생직업체험의날 운영	초 80여교 1,800여 명 운영 지원	
학생진로동아리	학생진로동아리 140개 동아리 지원 및 표창	129개(중81, 고48)
진로직업체험경진대회	창의력 및 창작요리, 진로콘테스트 대회	300여 명 참가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중고교 단위학교별 추진	
진로의 날, 달 운영	중고교 단위학교별 추진	
진로 자료 개발 보급	연구정보원 및 직능원 개발자료 보급	드림레터 등 51종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	초 373교 6학년 854학급 진로수업(3시간)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진로교육 원격연수 3기 1,390명	총 7,074명 이수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양성·운영	천안, 아산, 예산 센터 25명	
교원 진로교육 연수 운영	관리자 및 일반교원, 진로교사 연수 400명	창업, 진로상담 등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진로상담실 상담 1,000건 내외	

2. 진로교육 협업조직도



3. 2015 진로교육의 성과와 한계

가. 진로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기틀 마련

-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일부 형성되었으나,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로교육 서비스 및 지원정책은 제한적임
 - (성과) 학생에게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진로검사도구, 진로심리검사 도구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참여율 증가**
 - (한계) 단체(학년, 학급)중심의 진로검사, 진로체험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설계 지원 부족**
-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진로교육이 마련되었으나 지역 사회 및 유관기관 간 행·재정적 협업체계가 다소 미흡함
 - (성과)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서비스 확대**
 - (한계)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연계체제 부족,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여 다면적 진로교육 업무추진에 **어려움 발생**

나.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 중등학교 진로교사 배치로 인식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진로교육 인력과 전문적 역량은 미흡
 - (성과) 진로진학상담교사 전체 중등학교에 **100% 배치 완료**
 - (한계) 학교구성원의 진로교육 인식 저조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
-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 보급하였으나, 학교급별 특징을 반영한 진로체험 기회 및 교육과정 연계지원은 미흡
 - (성과) 학생, 학부모 및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위한 양질의 **진로교육과정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보급**
 - (한계) 다양한 수요 계층의 요구 증가와 변화에 따른 학교진로교육과정, 콘텐츠,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는 부족
-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부 및 센터를 신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진학지도를 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함
 - (성과) 진학지도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학교급별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체계구축
 - (한계) 학교현장의 진학지도 수요에 부응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가 요구됨**

다. 지역사회로 확장된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 진로교육, 진로체험 요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나, 지속적인 제도정비가 요구됨

- (성과)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14개 교육지원청별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진로 코치(7074명)
- (한계) 지역 혹은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 협력네트워크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

라. 학교급별 기초 역량 지원

-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학교급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인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필요
- (성과) 진로교육 자료개발, 원격연수, 목표 및 성취기준 등 제공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현장 만족도 높음
학생 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확대
- (한계) 2015 교육과정 개정 등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
농산어촌, 도시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요구
유형별 진로상담(특히 중3, 고1,3 진학상담) 미흡

마.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기간 : 2015.6.24. - 7.31 온라인조사, 주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

내용 \ 만족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학교 진로활동	4.08	4.11	3.78	3.67	3.72	3.60

□ 학교 진로활동 내용별 만족도

내용 \ 만족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진로 수업	4.12	4.07	3.86	3.65	3.85	3.58
진로 심리검사	-	-	4.00	3.77	3.92	3.72
진로 상담	4.16	4.08	3.98	3.77	3.96	3.73
진로 동아리	-	-	4.12	3.82	3.98	3.81
진로 체험	4.22	4.09	4.08	3.81	3.98	3.76

□ 학부모의 자녀 학교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

내용 \ 만족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학교 진로활동	3.73	3.78	3.73	3.66	3.73	3.69

바. 2014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연구·희망 학교 사전·후 결과 비교, 2014, 한국교육개발원>

□ 학생

대영역	연구학교			희망학교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교육과정 및 수업	3.60	4.01	0.41	3.74	4.03	0.29
학생의 수업 참여	3.47	3.84	0.36	3.51	3.82	0.31
학교 구성원간 관계	3.73	4.06	0.33	3.86	4.07	0.21
교육결과	3.68	4.01	0.34	3.74	4.02	0.28
학교생활 행복감	3.69	4.03	0.44	3.72	4.00	0.37
전반적 만족도	3.73	4.09	0.36	3.79	4.12	0.33

□ 교사

대영역	연구학교			희망학교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교육과정 및 수업	3.88	4.25	0.37	3.87	4.10	0.23
학생의 수업참여	3.57	4.01	0.43	3.52	3.72	0.20
학교구 성원간 관계	3.86	4.23	0.37	3.90	3.97	0.07
학교운영	3.43	3.84	0.40	3.41	3.48	0.07
교육결과(1)학생역량	3.76	4.15	0.39	3.77	3.91	0.14
교육결과(2)교사역량	3.92	4.15	0.24	3.95	3.98	0.03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	3.82	4.21	0.39	3.83	4.07	0.25
전반적 만족도	3.70	4.06	0.36	3.78	3.82	0.04

□ 학부모

대영역	연구학교			희망학교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사전평균	사후평균	차이 (사후-사전)
자녀의 학습 태도	3.81	4.04	0.22	3.68	3.80	0.12
학교 구성원간 관계	4.09	4.44	0.35	4.08	4.17	0.09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3.93	4.12	0.20	3.77	3.92	0.15
교육결과	3.95	4.15	0.20	3.81	3.97	0.16
학교생활 행복감	4.11	4.35	0.24	3.92	4.09	0.17
전반적 만족도	3.85	4.15	0.30	3.89	3.93	0.04

IV. 2016 충남 진로교육의 방향

1. 2015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금년도 주요 반영 사항

가. 원활한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활동 보장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

■ 요구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진로활동 계획 수립

- 학생 - 학부모(수요와 공급) - 교사 - 학교 - 지역사회(수요와 공급)

■ 진로교육을 기초로 한 학교교육과정 수립 운영

- 통합적 관점(내용): 교과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 후 활동
- 협업구조(운영):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운영자

■ 지역사회 내 공공 및 유관기관(학부모 포함)의 협업체계 운영 절실

- 진로교육법에 근거한 유관기관 상시 협의체 구성 상시 운영

나. 충남의 특성상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제약 받지 않고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확대가 요구됨

■ 소규모학교 운영 내실화

-(금산교육지원청) 진로체험버스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 우수기관 협업체계 구축

-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교육과정내 + 방과후)
-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기업체와 협업: 찾아가는 프로그램)

■ 농산어촌 지역내 진로체험처 확보

- (장항중학교) 읍 단위의 소규모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내의 14개 유관기관과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였고, 18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다. 중3, 고등학교1, 2, 3년 진학지도는 진로기반 진학·취업 교육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교·대학 학과를 선택할 수 있고,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진학 및 취업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

■ 중3학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학과 선택 등

■ 고1, 2학년: 문과이과, 진로집중과정 선택 등

■ 고3학년: 대학 및 학과 선택, 취업 등

2. 2016 진로교육 주요 추진 방향

목표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비고
I. 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	1. 진로교육 강화학교 교육과정 운영	- 진로교육과정 확대 및 교과연계 강화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종합지원 체제 구축	「진로와 직업」 편성 확대 - 교과통합 진로수업 운영 - 일반고 시범학교 운영 - 진로활동실 구축 운영 - 진로상담 모형 개발·보급
	2. 수요자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및 진로전환기프로그램(STP) 확산 - 선취업후진학 지원 프로그램 - 학부모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산	- SCEP, STP 우수사례 일반화 - 진로교육 컨설팅 강화 - 미래인재과 취업률 제고 -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 진로교육 콘텐츠 홍보 확산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진로 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자·다문화 학생, 저소득층학생 진로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등 해당 부서
II. 진로 체험 지원 시스템 구축	1. 체계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확대	- 자기주도적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 진로체험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진로선택기 진로체험 확대 - 안전한 진로체험처 발굴·확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	‘꿈길’활성화 - 특성화고·대학 연계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 상설진로캠프 운영 - 공공기관 진로체험의 날 운영 - 꿈나무·주니어 리더·청소년 기업가체험 등 프로그램 신설 운영
	2. 진로체험 협력강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	- 진로멘토단 확보 및 진로교육 참여 확대 - 농산어촌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직업인 멘토 초청 활용 -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 농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 - 생생직업체험의날 운영 - 신도불이·산들바다 프로젝트 등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III.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협력 강화	1. 교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양성·배치 - 관리자 및 일반교사 역량 강화 - 진로교육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 초등 진로전담교사 양성·운영 - 진로교육 직무·자격연수 운영 - 진로교육 연구회 운영 - 진로체험지원 시니어 양성·운영 -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운영
	2. 진로교육센터 지정 운영 및 정보망 구축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고입/대입 진학지도 강화 - 사용자 친화적 진로정보망 구축 및 연계서비스 강화	- 열린진로정보‘잼’제공 - 신설전담부서 기능 강화 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 공공기관 진로체험 평가 지표반영
	3. 진로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강화	진로교육 지역 협력네트워크 강화	진로교육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추진

3. 2016년 신학기 맞이 학교별 준비사항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비고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	1-① 진로교육 추진계획 수립	* 단위학교 진로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 과정 반영 - 진로교육 추진 관련 체험·연수 등 예산 확보 -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진로 중심 학교교육과정 수립 및 학년별 진로교육 로드맵 기반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행 계획 수립	교육부 학교정책과-7904 (2015.12.31.) 기획관-40(2016.1.4.)
		* 중·고교 '진로와 직업' 과목 3년 동안 최소 2단위 이상 편성운영	
	1-②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창체, 자유학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 등 교육과정에 추진 계획 반영	진로교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진로교육법 제정 (2015.06.22.) - 시행령 공포 (2015.12.23.)
		* 진로체험 유형 - 현장직업체험,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직업실무 체험형, 진로캠프형 - 전문직업인 멘토 초청 활용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인정	
	1-③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초·중·고교에서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 운영 가능	진로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16학년도 일반고 진로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 전국 37개교 운영 예정	
	1-④ 진로상담 수업시수 인정	*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법 제11조 교육부 학교정책과-7904 (2015.12.31.) 기획관-40(2016.1.4.)
		* 진로선택기(초6, 중3, 고1, 고3) 담임 연계 진로 상담 추진 - 진로 결정기 진학상담의 요구	
		* 수업시간 진로상담 실시 및 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 진로교사 진로상담 시간표 작성 및 Neis 상담기록 결재	

지정토론

◆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장기승(충청남도의회 의원)

◆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

정대옥(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미래역량 키움을 위한 학교진로교육

이윤영(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지명근(온양풍기초등학교 학부모)

◆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

김부겸(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 기 승

I. 들어가기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논란이 아니다. 결혼을 한다해도 애를 낳지 않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저하되어 몇 10년 후에는 국가가 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수치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인구감소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감소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쉽게 찾을 수는 없다. 아마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외치듯 그것은 미래 청년들이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않는 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결혼하여 애를 낳고 길러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즉 젊은이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2세를 낳고 기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어떤이의 꿈을 심고 그 꿈을 가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것이라 예단해 본다.

지금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기르고 방전 시킬 수 있는 자양분을 주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금수저, 흙수저라 치부하고 계단조차 밟기를 주저하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 힘없음을 바라볼 수 는 없다. 아예 주어진 선택조차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자는 것이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것도 덕선의 남편감을 어떻게 선택하던가! 적어도 덕선이는 공군조종사인 정환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수를 띄울 줄 아는 바둑기사 택이를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에너지가 높은 쪽을 따라간 판단일 것이다.

1988년엔 꿈이 없는 청춘이 드물었다. 그런데 요즘은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주변에 차고 넘친다. 이제 머물러 주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시대 누구에게나 꿈을 꾸게 하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학교교육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는 초점이 학교에서 길러내고 있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 등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학교가 생성하는 상대적인 위치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주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일의 세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진로교육은 우리 교육현실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새로운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 때문이다. 입시경쟁과 성적경쟁으로 매몰된 교육현장을 살리려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재능을 찾고 기를 수 있도록 꿈을 꾸게 하자. 최소한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 되게 말이다.

II. 무슨 꿈을 꾸게 할 것인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학교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켄 로빈슨 교수는 「학교혁명」(2015)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부진이나 열등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 이처럼 획일적인 교육은 표준을 잘 따라오는 소수 학생들만 키워낸다. 학생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는 동떨어져 있다. 로빈슨 교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려면 △인간의 지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관심사와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해주며 △시간표를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춰주고 △개인별 진도와 성취도를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학생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특성, 소질이 있는데 같은 잣대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교육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지적이다.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 지도가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진로교육의 목표는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계획 수립에 국한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입장에서 핀란드 진로교육의 목적은 “성장 및 발달(growth and development)”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과정 운영에도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교육과정(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4)에서는 ‘진로지도 활동의 목적은 학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choolwork)을 향상시키는(p. 256)’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진로지도 상담가,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산업체, 학부모 등의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즉, 핀란드의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핀란드의 교육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학업적인 경험을 갖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복지(well-being)를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야 할 미래는 빠른 변화의 속도에 발 맞추어 늘 새로운 적응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직업 생활이 연장됨으로서 보다 긴 기간 동안 직업에 종사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알고 최적의 시간과 비용을 가지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희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이 강조하였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에 공헌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재적소 배치에 따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 성취도를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가치관을 명료화하여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치관의 명료화에 의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생애 목표를 정립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

Ⅲ. 진로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조건(진미석 2006에서 인용)

교육방법으로서 진로교육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방법에 대하여 연구와 프로그램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들이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학생들의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키우는 교과목들은 그 자체가 진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은 이 교과목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기초능력이 무엇인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초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방법들이 요청이 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교과목에서 변화하는 사회와의 관련을 반영하면서 해당 교과목에서 길러지는 지식과 능력들이 직업현장에서 어떻게 쓰여 지는가? 사회의 변화에 해당교과목의 내용은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를 현장 교사들과 연구자들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대로 현장학습을 통한 지식의 학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화와 진로에 대한 설계와 준비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에 대한 시범학교의 선정과 연구프로젝트들이 간헐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가 공유되고 확산되지 못하고 단순한 시범 프로젝트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이 그 교과목에서 나타나는 관련 직업소개 이상의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고 대안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교과목 담당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진로·직업’이라는 구조화된 교과목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선택교과목으로 진로·직업교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인정된 진로·직업 교과서만 하더라도 10여종을 넘어서고 있다.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실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준비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로교육의 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곧, 진로교과목을 통한 자신의 진로의 설계와 준비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학습대상으로서의 교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비단 진로교과목만이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진로교과목에서 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진로교과목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직업세계나 직업의 중요성, 진로선택의 중요성 등을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주관화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목을 통한 교육이 자신의 경험의 틀 속으로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담당자는 매우 세련된 교육방법을 갖고서 진행하여야 한다. 즉, 진로지도에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로, 학업과 향후 직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준비되지 못한 진로교과목의 교육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직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을 실천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부담만 가중시켜 학습과 직업세계에 대한 흥미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로교과목 담당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요청된다 하겠다.

셋째, 진로의식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끊임없는 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야 할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일차적인 요소는 바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습에서의 ‘일의 요소, 즉 직업교육의 강화이다. 다만 이때의 직업교육이란 단순히 특정 직업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그 바탕 위에 자신의 학습과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일에 관한 의식화 교육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의식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움에 대하여 방향감을 줄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해야 하겠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의 취약한 직업의식이 직업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식과 태도는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해서도 필수 자질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 보다 의식과 태도에 관한 교육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어렵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기관에서 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의 축적이 필요하다.

IV. 나오면서

중학교에서 전면적인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그 만큼 잠시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역량을 살펴보는 중요한 시기를 가지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학교 시기가 아니라, 차라리 초등학교 시절에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을 그 기간으로 주면 어떨까. 아니,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장치를 주면 어떨까 한다. 필요하다면 학교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함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가족 과제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인성교육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으니 “꿈꾸는 법”을 만드는 것은 또 어떨까? 답답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살풀이 기간 말이다. 이제

꿈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동의한다. 다음은 어떻게 언제 누구와 그 꿈을 구체화할 것인가는 학생 자신과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참 고 문 헌】

진미석(2006).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손유미(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계화방안연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윤형한(2003). 성인진로개발지원체제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윤형한(2004). 성인진로개발지원인력의양성·활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정 대 옥

2016년 충남교육에서 진로진학교육이 강화된다. 김지철 교육감이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는 양 날개로 비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진로진학교육 강화 정책은 이미 지난해 9월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 진학부’가 신설되면서, 2016년 진로진학교육 추진 기본 계획 준비 업무로 시작되었다. 2016년 진로진학교육의 지향점은 “학생이 행복한 진로진학교육”으로, 추진 방침은 “학생중심, 학교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업추진 방향은 “꿈 찾아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강화”,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진로맞춤형 진학지도”, “교육수요자를 위한 진로진학 서비스 제공” 등이다.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2016년 진로교육 추진 계획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필요한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평생에 걸친 진로역량의 개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초등학생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진로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잡월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생생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교실에서

1일 3시간의 초등학교용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전체 초등학교 6학년에게 제공하고 있다. 운영자 연수, 수업 컨설팅, 현장 평가, 사후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체험기회의 제공이다. 학교 진로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체험활동’임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상설진로캠프’는 80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이 10여개 대학의 25개 학과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인 멘토의 날’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직업인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중학교의 자유학기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중심의 진로교육 방침에 따라 작년까지 운영되는 ‘충남진로체험전’을 대체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진로체험처의 부족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진로체험을 위한 이동에서의 안전과 비용절감 및 학생 개개인의 직접적인 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학교 가까이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14개 시군을 격년으로 방문하여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 진로상담실을 운영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며, 본원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진로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상담위원은 진로전문성이 뛰어난 초·중·고 교사 50여명이 만족도 높은 상담을 진행한다.

■ 이 밖에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교육에 도움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아카데미’가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각종 진로교육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I. 2016년 대학진학지도 추진 계획

2016년 대학진학지도의 목표는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진로맞춤형 진학지도, 단위학교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진로진학서비스 제공 등에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학교 현장 중심의 진학지도 시스템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벨트형 진학지도 프로젝트 추진’, ‘학부모가 공감하는 진로진학지도’이다.

9개의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목표에 도전한다.

- 대학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개선 강화한다. 연수는 직급별(교장, 교감, 교사), 대상별(교사, 학생, 학부모), 학년별(3학년, 2학년, 1학년) 등으로 구분 운영되며, 내용에 따라 시기 맞춤형(수시, 정시), 주제형 등 수요자의 세부적 요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연수를 추진한다.
- ‘대학진학지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단위학교의 대학진학지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발전 방안을 찾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을 투입하여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 ‘찾아가는 진학상담실’을 제공한다. 시군의 정해진 장소(학교)로 찾아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강의식을 지양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싶은 내용을 상담 형식으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 ‘상설 대학입학 설명회’가 운영된다. 14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월에서 8월 중 토요일에 열린다. 희망하는 대학교가 직접 참여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입시 안내와 상담이 병행된다. 전체 운영 일정 및 개최 장소 등은 3월중 학교로 안내될 예정이다.
- 모든 일반고등학교는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학생 개개

인별 1학년 입학부터 졸업까지 내신성적, 전국연합성적 등을 입력 관리하여,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서 진학희망 대학이나 학과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상담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월 말 개통될 대교협이 만든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adiga.go.kr)와 협력 운영될 것이다.

- ‘수시모집 박람회’를 개최한다. 주요 대상은 고3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00% 사전 예약제로 7월 4째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운영한다.

- ‘진로진학 토크쇼’가 열린다.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다. 3월 중 안내될 연간 일정에 따라 14개 시군의 정해진 장소에서 18:30부터 자녀들의 진로진학교육을 주제로 전문가의 강연형식으로 진행된다.

-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내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대학진학지도의 전문성 높은 교사 50명으로 구성되었다. 본원이 운영하는 사업의 중심이 여기 50명의 지원단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며, 본원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진학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2016년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추진 계획이 마무리되면 학생들 개개인은 미래 설계하는 진로개발역량이 성장하게 될 것이며,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꿈과 끼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학생, 학부모 및 학교 중심의 진로진학교육의 성과가 학교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역량 키움을 위한 학교진로교육

온양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윤 영

변화하는 미래사회 우리아이 어떻게 교육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속에 학교교육의 현실은 암울하다.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치열한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리는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 언젠가 미국의 석학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한 말이 생각난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열다섯 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을 꼬집어 여간 낯 뜨거운 일이 아니다. 공부가 전부인 세상,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말랑 말랑한 흙을 밟을 수 있는 교육이 언제나 올까? 여기 저기 교육을 걱정하는 아우성으로 요즘 우리 교육계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다. 충남 교육청도 주요정책 1번에 두었고 교육의 기저로도 내걸고 있다. 미래 핵심역량이란 소박하게 말해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이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20년 뒤의 세상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학생들에게 20년 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자꾸 커지고 있다.

1. 교육의 중요성! 무엇이 미래핵심역량 교육인가?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듯 교육 활동은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해야 한다.

최근 미래핵심역량 교육이 비중 있게 제시되면서 핵심역량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래핵심역량 교육의 발단은 2000년대 OECD가 먼저 화두를 던졌고 DeSeCo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DeSeCo는 지식에서 역량으로 변화를 예고하면서 전인적인 개념으로 창의적인 능력, 문제해결 능력, 공감 능력, 소통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지칭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한 교육의 방향성을 미래핵심역량을 통해 제시하였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e/Key competence)의 개념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개개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누구나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의 성격’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미래인재를 키우는 초·중등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시민의식, 국제 감각이해능력, 진로개발능력의 10가지를 선정하였다.

1)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교과별 역량을 교과 성격으로, 그 하위요소로 교과 목표를 두고, 교과 수업을 통해 역량 교육이 실현 되도록 위해서 이다.

2. 학생중심의 학교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학교교육과정도 많은 변화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융합인재, 인성교육중심, 미래인재양성이라는 큰 틀을 두고 있지만 대학진학이라는 커다란 산으로 내신관리, 진로스펙관리, 수능점수,

1) ‘미래핵심역량 교육의 실현’ 전남교육에 제안한다. 행복한 전남교육 신안 압해동초 교장 장성모

대학입시경쟁에서 모두가 무너지고 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양한 교육과정편성과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끼를 살려 끈으로 꿈을 실현하도록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다.

2016년을 열면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중심의 학교 구현’을 첫 화두로 제시했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 강화’라고 했다. 참학력은 전통적인 학력을 확장시킨 개념이며 인성, 사회성, 신체적 능력을 포함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능력이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학력. 학교는 공부하는 곳!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이 만들려고 커다란 포부를 내비쳤다.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참학력 신장’을 위한 기반이고 참학력을 키우는 일은 배움이 즐거운 수업혁신을 통해 가능하고 수업혁신은 교사들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강조했다.

또,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자치단체와 연결하는 대학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 했다. 다양한 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가동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멀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을 위해 서로 상생할 것을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본격 운영되는데 효율화 방안으로 2016년 전면 실시에 따라 ‘학생이 행복한 충남 자유학기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충남 자유학기제’를 슬로건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학생 체험활동 개선 등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이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시작이 아닌가 한다. 교육이란 인간이 세상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키워주는 일인 만큼, 미래 핵심역량을 학교교육의 바탕으로 삼은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다양한 활동과 체험중심 수업! 수업의

교수학습과 프로그램으로 독서 토론수업과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체험을 통해 배우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주는 변화가 일고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운영도 아이들이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장래의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입시다. 초·중학교에서는 미래 핵심역량 교육에 힘쓰다가도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성적 관리에 매몰되어 버린다. 미래 핵심역량 강화라는 교육의 흐름이 대학입시라는 현실논리 앞에서 모래성처럼 맥없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을까? 일선 고등학교도 또한 같다. 서울의 명문대학 합격자를 많이 진학 시키는 것이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의 공통과제이며 꿈이다. 어떻게든 성적을 쥐어짜서 명문대학에 합격만 많이 시키면 박수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가 최대의 걸림돌이다. 대학입시라는 경쟁의 관문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어 학생선발에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좋은 학생 선발을 위해 다양한 것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에 맞추어 여전히 방학 없이 보충수업과 심화 수업으로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육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3. 미래역량키움을 위한 진로교육 제언

미래 핵심역량 키움을 위한 학교에서 수업과 진로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독서·토론 교육으로 미래 핵심역량 강화이다. 또한 더불어 글쓰기 능력도 강화 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는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했던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방법이 독서·토론 수업이다. 독서·토론 수업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적인 넓은 시야를 갖고 보았을 때 언어능력과 사고의 깊이 표현 능력은 독서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당기간의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활발한 토론과 토의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외국어교육이 아닌가 한다. 문법위주와 고사를 치르기 위한 학교 수업이 아닌 듣고 말하기가 우선으로 해결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선에서는 듣지도 못하는데 말하고 쓰기부터 하게하여 언어의 장벽을 크게 느끼게 한다.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한 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만 미래역량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강의식 영어 수업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학교수업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대학입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성적에서 자유로워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은 강의식 수업으로 질문이 사라진지 오래! 특히 초, 중, 고로 갈수록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적어 우울감으로 왕따로 병들어 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으며 지식 서로 교환함으로 정보역량이 깊어지리라 본다.

셋째, 자기주도적인 활동과 체험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다. 자기관리 영역도 커질 것이고 또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 자신이 직접 해 본 경험만큼 기억에 남고 효과적인 교육은 없다. 계획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는 칠전팔기 같은 힘을 길러주는 것도 교육의 큰 몫이다.

넷째, 예술문화교육의 강화로 융복합적인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 실시로 조금이나마 문화예술 교육의 지평을 확대되어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과 ‘교육’의 합성어이다. 교육적 가치로 창의성, 인성, 사회성을 추구하며 공감과 소통으로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예술 문화 체육이다. 최근 교육부 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고교생 희망 직종 1순위로 문화·예술·스포츠가 꼽히기도 하였다.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중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광고가 생각한다. 경쟁사회에 매몰된 아이들 미래 핵심인재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모두가 아이 진로교육을 돕고 변화가 일어나 진로교육이 미래의 역량기움으로 밝은 미래를 바라보길 희망한다. 우리나라도 핀란드가 부럽지 않는 학교교육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미래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온양풍기초등학교 학부모

지 명 근

I. 서론

원고 의뢰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운영 위원도 겸하고 있기에 오늘 토론을 앞두고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 것이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은 할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잘 형성해 나갈까? 선생님께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중학생을 둔 학부모는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안보고 교육과정을 변형해 운영하면 나중에 고입이나 대입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이제 대학도 선택해야 하고, 학과도 선택해야 하는데 왜 자꾸 진로와 입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혼란스럽게만 하는 건지... 대학생들을 둔 학부모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경기는 어렵고 사회는 청년실업이니 뭐니 하며 취업도 걱정이고 결혼은 해서 가정을 꾸릴 수는 있는 걸까?...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진로’라는 두 글자가 이토록 캄캄하고 불투명해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모름지기 진로교육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잠재역량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 한 문장과 한 개인만을 놓고 보면 쉽고 간단해 보이는 진로교육이지만 이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 직업세계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쓸모 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702가지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10년 후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47%가 없어진다고 발표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닥쳐 상당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과 19세기 후반 전기·통신·자동차의 출현으로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20세기 후반 인터넷 등의 3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최근 기술발달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WEF가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주목한 것은 최근의 기술발전이 기존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대 중반에는 한 개인이 6~7회의 전직과 전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처럼 다변화되는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응하며 대처해 나갈 것인가?

II. 본론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36개국 가운데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설문한 ‘ICCS(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국제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이중 사회 역량 분야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전체 36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한 것이다. 사회역량 지표는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 3개 영역에서 국가별 표준화 점수(그룹 내에서의 우열을 1~0점으로 표기)를 매기고, 이 결과를 평균해 계산한 것이다. 각 영역 점수는 지역사회·학내 단체의 참여 실적, 공동체와 외국인에 대한 견해, 분쟁의 민주적 해결 절차 등을 묻는 설문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부분에서도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점수는 모두

36개국 중 최하위(0점)였다는 것이다. 문화·사회·경제적으로 이질적인 상대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처참한 수준이다.

원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한다는 비교 통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서로 잘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이다.

OECD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해 지구인들이 교육 부문에서 함께 실현해야 할 목표로서 핵심역량 지표를 만들어 각국의 교육 상태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핵심역량을 ① 지적 도구를 사용하기 ②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③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이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지표들의 국제비교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적도구활용 역량지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지표는 매우 낮고, 자율적 행동역량지표에서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중략> 한 마디로 우리나라 청소년은 머리가 좋은데 더불어 사는 능력은 낮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 있는 결과는 한국 청소년은 정부와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 등에서 주관적 평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에 의존한 엄밀한 계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받은 점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얻은 점수를 모두 합하여 줄을 세우고 앞줄에서부터 합격자를 고르는 방식이 생겨나는 이유는 전문적 평가자가 학생의 핵심역량을 보고 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앞줄에 서기 위해 지식 위주의 공부만 하고 깊은 내면적 성숙이나 사회적 관계 맺기와 같은 부분에서는 포기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민주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주위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일에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를 이끌어오는 정치 집단과 언론, 경제 집단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관용과 배려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 때가 된 것이다.

Ⅲ. 결론

첫째, 미래핵심역량에 기반한 진로교육과 입시제도 개혁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현재 정심역량 개발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다가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면 적어도 12년이라는 교육과정 속에 한 학기 이벤트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며, 학업 단계별 연계성과 실효성을 얻기 위해 입시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과 학교에서 질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시행해야 할 때이다. 신뢰가 없어서 못한다는 태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를 신뢰하고 학생의 핵심역량 위주로 평가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시행해 왔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중간과 기말 시험 등 시험을 없애고 수시 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이다. 신뢰의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정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추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공부를 집중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평가를 객관식 시험이나 계량적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핵심역량에 입각한 정성적 평가, 종합적 평가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진로활동 지원체제의 정비

학생들의 진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제(교육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지원청, 학교)는 갖추어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로

와 진학, 상담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운영자는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하나가 전부이다. 교사 한명이 1,000명의 학생들을 수업지도하며 상담과 진학, 진로컨설팅을 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현실이다. 과거 아이교육을 모두 학교에 떠넘기던 시절은 동화 속에나 있던 이야기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개인, 단체, 기관들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돕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진로교사와 담임교사 외에 모든 교사가 진로멘토가 되고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사회교육기관, 사업장이 교실이 되어 한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켜야 한다. 물론 그 중심에서 허브기능을 수행하며 진로교육을 운영할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부족하다. 이 모든 자원을 엮어 아이 하나하나에게 실효성 있는 만족스러운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체제의 네트워크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진로서포터즈 양성

지난 2014년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 자신의 진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진로교사라는 응답은 2.6%에 불과 했고, 부모님이 46.4%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고, 누가 나서야 하는지는 정해졌다. 진로교사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협업하고 지원이 가능한 인적자원을 모아 진로강사와 진로전문가로 양성하여 지원체제정비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학부모지원단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산이 선도적으로 실행에 옮겨 먼 훗날 청소년들의 행복한 학창시절 기억 속에 아산이 떠오르기를 희망한다.

무엇이 이 아이를 잘못들게 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뛰어오게 합니까?

무엇이 버스를 놓치게 합니까?

무엇이 연필을 놓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찾는 진로교육의 진실은 □입니다. <W회사 CF광고 카피 재구성>

IV. 참고문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15). 현단계 진로교육, 그 너머를 말하다.

웅진싱크빅 CF광고(2011). 바른교육 큰 사람.

코칭리더(2016). cafe.daum.net/coachingleader.

충남청소년진흥원(2014). 2014 충청남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YTN news(2011). 신율의 출발새아침. 교육이 희망입니다.

학부모의 관점에서 본 진로교육

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김 부 겸

1. 교육의 시작은 가정(부모)

- 인성교육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과 순자(荀子)의 성악설 (性惡說)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선』하고 『악』하는데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적 공통점은 교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前者)는 선하게 태어난 본성을 교육을 통하여 그 본성을 유지·발전시키고, 후자(後者)는 악하게 태어난 본성을 교육을 통하여 선하게 바꾸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육, 특히 인성교육이라 할 것이고,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시작된 인성교육과 함께 진학 및 진로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며, 이때의 올바른 교육이 진로에 관한 인성역량 등 모든 역량을 제고(提高)시키는 시작일 것이다.

- 학부모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현재 충남의 각 시·군 교육지원청 특히, 아산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으며 참여도 또한 높다.

하지만, 학부모의 교육·연수의 참여 기회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므로 일선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진로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가. 학부모

1)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

자녀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자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고, 양자(兩者)를 찾아가는 역량을 제고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자녀의 생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여 자녀를 설득하려하고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 강압으로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자유로운 사고(思考)를 할 수 있을 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자주 변하는 자녀의 생각을 인정해 줄 것

성장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자녀의 생각이 자주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부모의 시각에서는 자녀가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자녀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4) 진로를 결정할 때 까지 충분한 시간을 줄 것

자녀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았고, 그 두 가지가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여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역시 자녀의 몫이다. 약간의 조언만이 필요할 것이다.

나. 교육기관

1) 유·초등 교육기관

유·초등 교육과정은 올바른 인성, 창의적 역량, 학습역량 등을 키워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므로 문화,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전달교육이 아닌 체험활동, 콘텐츠(contents) 활용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꿈과 끼를 찾아주는 교육의 적절한 조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며 학부모와의 소통과 학부모의 연수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중학교

단순한 교육과정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교과 과정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교실에서의 지식전달 위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라 할 것인 바, 단순한 견학 수준의 체험활동이 아닌 『토론·실습·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자녀의 성적을 알지 못해 불안함을 느끼는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학교 교실 내에서의 교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적절히 측정해야 할 것이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부모에게는 관심이 가장 큰 과정이고, 대학교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약간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수월성 교육

미래세대에는 한명의 인재가 수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교육 관계자는 입을 모아 말하지만 현실 교육과정에 있어서 진정 인재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타 학생들 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야(부분)에 관하여 좀 더 심화된, 좀 더 특화된 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의 역량을 더욱 함양토록 하는 인재·영재 교육은 우리사회가 성공적인 미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수월성 교육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학업능력별 집단형성(학급 간 집단형성, 학급 내 집단형성)과는 다른 의미라 할 것이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별 기초학력은 그 과정별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업능력 수준이라 할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그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승진점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이라는 최소한의 학업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역량을 함양하여 성공적으로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학업성취도가 평균적인 학생 교육

학업 성취도가 평균적 수준의 학생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아 내어 창의적인 인재로서 미래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의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도 학업성취도에 맞추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 교사의 관심과 소통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기회의 제공 및 분야별 세분화되어있는 동아리 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다. 지역사회

1) 공공기관, 민간부문 시설 및 산업시설

교육기관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문화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

2) 지역 내 소상공인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역역도 반드시 요구된다.

3) 학부모 및 개인

지역 내의 학부모 및 개인 중에서 일정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의 재능기부를 유도하여 문화, 예술, 과학, 체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보조교사로서의 참여 또한 필요하다.

4) 사회적 협의체

상기(上記)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역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내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 다양한 체험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 교육지원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3. 학부모 관점에서의 제언(提言)

입시교육과 진로교육의 의미는 사전적 또는 정책적 의미로서는 분명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입시교육과 진로교육 등 모든 교육 활동은 결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든 무엇을 선택하여 어느 대학교에 진학하든, 진학을 하지 않든 모든 것이 자녀의 진로선택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입시교육과 진로교육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학부모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의 다양한 진로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진로교육과 입시교육이 이질적(異質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그것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른 교육분야와의 균형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다.